

# ‘역대 최대’ 지스타... 올해도 모바일 게임·e스포츠 대세

## ‘지스타 2018’ 폐막

3일차 누적 관람객 수 17만 여명  
작년 관람객 23만여명 육박 예상  
넥스·넷마블 시연기기 인산인해  
PC·콘솔 게임 등 존재감 없어

지난 1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게임박람회 ‘지스타 2018’이 나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막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며 올해 지스타는 지난해보다 관람객 수가 늘어나며 최대 규모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지스타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지스타 누적 관람객 수는 17만 4839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차에서 3일차 모두 전년 대비 관람객 수가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지스타 관람객 수인 23만여명을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업들의 비즈니스 장이 열리는 BTB관을 방문한 유료 바이어 수도 2169명으



넥스 부스 전경.

/넥스

로, 지난해 기록인 2006명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첫날 방문한 유료 바이어 수는 1779명으로 집계됐다.

### ◆배틀그라운드 VS 포트나이트... 지스타 현장서 정면 대결

올해 지스타에서 눈에 띄는 구도는 ‘배틀그라운드’와 ‘포트나이트’의 정면 대결이었다. 블루홀의 자회사인 펍지에서 개발한 배틀그라운드와 미국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는 배틀로얄 형식의 총

싸움 게임이다. 국내에서는 배틀그라운드의 인기가 높지만 북미·유럽 시장에서는 포트나이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이번 지스타에서 메인 스폰서를 맡으며 국내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 전시장에서도 배틀그라운드와 포트나이트의 대결 구도가 눈에 띄었다. 펍지는 제1전시장에 100부스 규모의 배틀그라운드 부스를 마련해 메인 무대에서 배

틀그라운드 모바일 스트리트 챌린지 현장 예선과 한국 대표 선발전을 진행했다. 배틀그라운드를 퍼블리싱하는 카카오게임즈도 아프리카 TV BJ들이 참여해 실시간 중계를 펼쳤다. 에픽게임즈도 같은 규모의 부스를 마련해 게임 크리에이터와 프로 게임단 소속 선수가 참여하는 ‘스트리머 브라더스 대난투’ 이벤트를 열었다.

생중계로도 방영되는 e스포츠를 관람하기 위해 몇 시간 전부터 자리를 잡으며 줄을 서는 관람객도 눈에 띄었다.

### ◆PC게임, 모바일로 옮긴 넥스·넷마블... 시연대 인산인해

대형 게임사인 넥스와 넷마블의 신작을 시연하기 위한 관람객들도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번 지스타에서 넥스는 총 14종의 신작을, 넷마블은 4종의 게임을 선보였다. 참가사 최대 규모인 300부스를 운영하는 넥스는 623대의 시연기기를 마련해 지스타 첫날 지난해 대비 약 43% 늘어난 2만2000여명이 부스를 방문했다.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 등의 신작을 선보이기 위해 260대의 시연을 마련한 넷마블은 권영식 대표 등 경영진들이 넷

마블 부스를 방문하며 직접 시연 진행을 돕기도 했다.

### ◆‘보는 게임’ 대세... 존재감 없는 PC·콘솔 게임은 아쉬움으로

올해 지스타도 ‘보는 게임’인 e스포츠 관전이 메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EA ‘피파온라인4’의 e스포츠 대회인 ‘EA 챔피언스컵 윈터 2018’도 볼거리로 꼽혔다. 부산 벡스코 현장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결승전 당일 현장에 참여하는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와 트위치도 부스를 내고 리그오브레전드, 포트나이트 등 각종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했다.

다만, 이번 지스타는 대부분의 게임이 모바일에 집중되고, PC·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게임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모바일 게임으로 중심추가 이동한 트렌드도 이 같은 추세에 영향을 끼쳤지만, 국내 최대 게임 행사이니만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게임도 즐기고 싶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LG V40썬큐, 지스타서 게이머 사로 잡아

LG전자, 넥스 부스 내 체험존 마련  
가벼운 무게·성능 등 관람객 호평



LG전자는 15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18’에서 넥스 부스 내에 LG V40 썬큐 160대와 LG G7 썬큐 295대를 설치한 대형 체험존을 마련했다. /LG전자

LG전자는 자사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40 썬큐(ThinQ)’가 국내 최대 게임축제 ‘지스타 2018’에서 모바일 게이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는 15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지스타 2018’에서 넥스 부스 내에 LG V40 썬큐 160대와 LG G7 썬큐 295대를 설치한 대형 체험존을 마련했다.

LG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게이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체험존 규모를 지난해보다 두 배 더 키웠다.

넥스는 LG V40 썬큐를 올해 ‘최고의 게이밍 스마트폰’으로 선정했다. 관람객은 체험존에서 넥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모바일 게임 ‘바람의나라: 연’과 ‘마비노기 모바일’ 등을 LG V40 썬큐로 체험해 볼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LG V40 썬큐는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 선명한 디스플레이, 풍부한 저음 등 게임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성능으로 관람객들의 호평을 끌어냈다.

기존 스마트폰 대비 저음이 두 배 이상 풍부한 분박스 스피커는 제품 상단 수신부 역할을 하는 리시버를 스피커처럼 활용해 사운드의 입체감을 한층 높였다.

## KT ‘지스타 배그모바일대회’ 5G기술적용

펍지부스에 5G 와이파이 설치  
유선에는 10기가 인터넷 적용



KT와 펍지주식회사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 마련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경기장에서 KT 5G 기술이 적용된 와이파이(WiFi)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KT

KT는 펍지주식회사와 ‘KT 5G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스트리트 챌린지’ 전국 예선을 마치고 ‘지스타 2018’에서 최초로 ‘5G 기술’을 적용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대회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KT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 2018의 ‘KT 5G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스트리트 챌린지’에 무선에는 KT 5G 기술을, 유선에는 10기가 인터넷을 적용했다.

KT는 펍지 부스에 KT 5G 기술을 적용한 와이파이를 설치했다. 또 생동감 있는 경기 생중계를 위해 유선에 10기가 인터넷을 적용해 올레 tv 모바일, 유튜브 등 7개 온라인 플랫폼에 경기 영상을 송

/김나인 기자 silkni@

## 신차 관람, 교통안전 교육에 서킷체험까지

# 온 가족이 즐길수 있는 車복합 문화공간

### Q 르포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

영종도에서 만난 ‘BMW 섬’ 드라이빙센터의 문을 열자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차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이곳에는 2.6km 길이의 폐쇄형 드라이빙 트랙 외에도 자동차 전시장, 이벤트홀, 톨스로이스모터카스튜디오, 환경 친화적인 스포츠 파크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다.

지난 16일 방문한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는 독일 마이저크와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스파르탄에 이은 BMW그룹의 세 번째 드라이빙 센터다. 2014년 8월 개장해 74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평일 오전임에도 가족단위로 온 관람객들이 많았다. 이들은 BMW의 제품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며 운전석에 앉아 차량 내부를 살피고 있었다.

### ◆BMW의 총집합체

1층 브랜드 체험관에서는 BMW와 미니(MINI), 모토라드의 모든 최신 모델들이 전시돼 있었다. 체험관 한 곳에서 720d 차종을 만났다.

신 차종들 사이에서 1953년에 만들어진 ‘이세타’를 발견했다. 2차 세계대



BMW 드라이빙트랙의 전경

/정연우 기자

전 이후 독일에서 큰 인기를 차지했던 이 차종은 1개의 앞문과 2개의 좌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길이 228cm밖에 되지 않는 소형 차량으로 모터사이클용 엔진으로 달리는 게 특징이다.

대한민국명장 장성택 BMW 그룹 상무는 “생산된 지 너무 오래된 차종이라 작동이 되지 않았지만 부품을 직접 깎아 만들어 지금은 운전이 가능하다”며 직접 차량에 탑승해 전시장 안을 돌며 주행을 선보였다.

장 상무의 안내에 따라 2층에 있는 키즈 드라이빙 스쿨 교육장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5~7세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도로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다. 가족단위로 드라이빙 체험을 하러 온 손님들이 잠시 자녀를 맡기는 ‘어린이 집’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 ◆BMW 330i로 경험한 2.6km의 짜

### 릿함

BMW 드라이빙 센터의 핵심 코스인 2.6km 길이의 드라이빙 트랙은 직진 구간 및 코너링 구간으로 구성된 긴급 조향이나 제동뿐 만 아니라 오프로드 주행기술까지 다양한 주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연습을 한다.

BMW 3시리즈 최상위 차종이라고 불리는 2018년형 330i M스포츠패키지에 탑승해 ‘어드밴스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3시리즈는 지난 1975년 최초 등장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1400만대 이상 판매된 차종이다.

BMW 드라이빙 센터의 트랙은 다목적, 다이내믹, 원선회, 가속 및 제동, 오프로드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됐다. BMW M 본사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강사가 상시 근무하며 안전운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

## 삼성SDS 개발자팀, 스타크래프트 AI대회서 韓최초 우승

삼성SDS는 자사의 개발자로 구성된 사이다(SAIDA·Samsung SDS AI & Data Analytics)팀이 캐나다에서 열린 AIIDE 스타크래프트 AI 대회에서 한국팀 최초로 우승했다고 18일 밝혔다.

AIIDE 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 세계에서 출전한 AI 붓기리 3주간의 리그전을 벌여 최고 승률을 올린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삼성SDS 사이다팀은 10월 말부터 이



삼성SDS 사이다팀이 캐나다에서 열린 AIIDE 스타크래프트 AI 대회에서 우승했다.

/삼성SDS

번 주까지 10개의 맵에서 진행된 약 2600번의 대전에서 2484승 106패, 96%의 압

도적인 승률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구서윤 기자